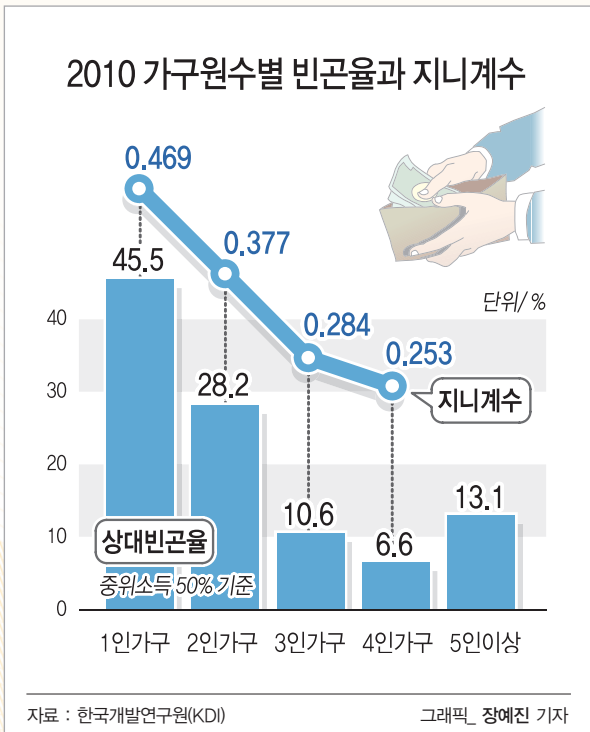


가난한 1~2인 가구 늘어난다

가족 해체에 실업까지 겹쳐 빈곤화
1~2인 가구 위주로 정책 개편 필요



가난한 1~2인 가구의 급증은 이혼과 자녀 분가가 늘어나고 독거노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미혼율이 치솟고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자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마저 해체돼 고립에 가까운 1~2인 가구가 급증한 것이다.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1~2인 가구의 가장은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빈곤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3~4인 가구 위

주로 짜인 사회정책과 복지제도를 1~2인 가구까지 포괄하는 쪽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늘어나는 '나 홀로' 가구

1인 가구의 급증에는 무엇보다도 미혼율 증가의 영향이 크다. 2000~2010년 사이에 1인 가구가 191만7천 가구나 늘었다. 이 가운데 미혼인 1인 가구의 증가가 88만6천 가구로 전체의 46.2%를 차지한다. 이어 사별(死別) 상태인 1인 가구 증가는 22.3%, 이혼 상태 1인 가구 증가는 17.6%다. 특히 30대 미혼율 상승은 1인 가구 증가세가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30대 미혼율은 1980년 3.3%에서 1990년 6.8%, 2000년 13.4%, 2010년엔 29.2%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결혼 시기 지체는 여성의 학력 수준이 올라가고 경제활동 참여가 많아지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혼 이외의 다른 남녀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꼬집는다. 우리나라의 만혼화와 미혼율 상승은 곧바로 저출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동거, 이혼, 혼외출산 등의 확산으로 전통적 가족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 출산율 감소가 상쇄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KDI 관계자는 “가구 유형의 변화와 가구의 비제도화 경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스웨덴, 덴마크, 영국 등은 동거라는 새로운 가정 형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높은 수준의 출산율도 유지됐다”고 지적한다.

2인 가구 증가에는 자녀 분가로 고령 부부가 늘어난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지난 10년 사이에 2인 가구 증가분 147만 5천 가구 가운데 부부로 구성된 2인 가구가 90만6천 가구로 전체의 61.5%에 달한다. 1세대로 이뤄진 2인 가구 중 60대 이상이 46.35%, 50대가 18.87%인 것을 고려하면 새로 늘어

2000~2010년 사이 1인 가구가 191만7천 가구 늘었다. 문제는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 등 경제적으로 취약한 1~2인 가구의 가정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생계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부모 가정이나 독거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은 상대적으로 크다. 이들 가정이 빈곤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사진: 신영근 기자

난 2인 가구는 50대 이상의 고령 부부가 대부분인 셈이다.

이혼이나 분거(分居) 확산에 따른 한부모 가구 증가도 2인 가구 증가세에 한몫한다. 모자(母子) 가구가 전체 2인 가구 증가분의 18.7%, 부자(父子) 가구는 7.0%를 각각 차지했다. 2세대가 함께 사는 2인 가구의 상당수가 40대와 50대인 것을 보면 이혼이나 분거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 절반가량 미취업

1~2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은 취업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KDI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2005년) 표본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가구 규모별 가구주 취업 상태를 보면 1인 가구의 가구주 미취업률 46.02%, 2인 가구는

36.94%로 1~2인 가구가 가장 높은 반면 4인 가구는 12.14%에 그쳤다.

우리 사회에서 소득의 주된 원천이 근로소득인 점을 고려하면 미취업률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1인 가구는 50대 이상에서 미취업률이 특히 높았다. 50대의 미취업률은 42.72%, 60대 이상은 73.71%에 달한다. 독거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30~40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미취업률이 각각 20.50%와 29.68%로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

2인 가구도 60대 이상 고령층과 함께 40대와 50대 가구주의 취업률이 낮다. 40대 가구주의 미취업률은 23.75%, 50대는 28.29%, 60대는 57.52%다. 한부모 가정은 특히 전반적으로 취업상태가 열악하다.



1인 가구의 증가에는 높은 미혼율도 한몫 한다. 2000~2010년 사이 1인 가구가 191만7천 가구 늘었고 이중 미혼인 1인 가구의 증가는 88만6천 가구에 달해 전체의 46.2%를 차지한다. '두근두근 커플 만들기' 행사에 참석한 미혼 남녀들. 사진_홍기원 기자

2인 가구는 한부모 가구 중심의 2세대 2인 가구, 고령자 부부 가구 중심의 1세대 2인 가구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2세대 2인 가구의 가구주 미취업률은 45.81%로, 1세대 2인 가구의 33.73%보다 12% 포인트가량 높다.

1~2인 가구는 소득불평등도도 심하다. 2010년 기준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집단 내 지니계수는 각각 0.469와 0.377로 전체 평균(0.298)보다 훨씬 높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게 이뤄진다는 의미이며 보통 0.4가 넘으면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본다.

1인 가구 집단에서 소득불평등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1인 가구 집단 내 지니계수는 2006년 0.423에서 2010년 0.469로 늘어난 반면 2~4인 가구집단 내 지니계수는 상승폭이 1인 가구보다 작거나 불평등이 오히려 개선됐다. 가난한 독거노인이 늘어나지만 부유한 싱글도 증가했다는 얘기가 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1~2인 가구와 노인가구가 늘면서 소득분배 편차가 구조적으로 악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 개입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제도·정책, 1~2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KDI는 한부모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한부모 가정 가구주의 경제활동 장려, 취업 알선, 의료급여 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부모 가정이다수인 2세대 2인 가구의 가구주 취업률이 54.2%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구주가 경제활동과 양육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한부모 가정 자녀의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 순위를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혼 후 비(非)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러 국가는 선지급 형태로 양육비 지급의무를 운영하고 있다.

빈곤 노인 가구의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 확대도 제안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을 받는 이는 160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30%에 불과하고 취업률도 30%에 못 미친다. KDI는 자영업자와 주부 등의 국민연

금 가입률을 높이고 개인연금 상품의 소득공제 폭을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노후 대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미혼율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는 혼인 장벽 해소를 제시했다. 사회적 성취 욕구가 높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하도록 유도하려면 혼인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직장에서 연속적인 자기 계발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이 3~4인 가구에서 1~2인

가구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택정책, 최저생계비, 소득공제제도, 사회보험 수급자격 등 기존 제도와 정책을 1~2인 가구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주거·기초보장 등 기존 복지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가구 특성별 빈곤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산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m**

김용래 경제부 기자 yonglae@yna.co.kr

구정모 경제부 기자 pseudojm@yna.co.kr

빈곤층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 대부분 고령층

우리나라 전체 빈곤인구의 절반 이상이 1~2인 가구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인 가구의 빈곤율이 해마다 높아져 독거, 한부모 가정이 빈곤의 나락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KDI의 '가구 유형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0년 기준 1인당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빈곤인구 중에서 1인 가구 구성원의 비율은 23.6%, 2인 가구는 31.3%다. 2006년에는 전체 빈곤인구 중 1인 가구와 2인 가구 구성원의 비율이 각각 16.6%와 30.3%였다. 전체 빈곤인구에서 1~2인 가구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46.9%에서 2010년 54.9%로 4년 새 8% 포인트나 급증한 것이다.

중위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가구의 비율을 뜻하는 상대빈곤율 역시 1~2인 가구가 심각하다. 1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2006년 40.6%에서 2010년 45.5%로 올라갔고 2인 가구는 26.3%에서 28.2%로 증가했다.

1~2인 가구의 빈곤인구는 60대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 2010년 기준 1인 가구에 속한 빈곤인구의 72%는 60대 이상이고 2인 가구는 68.2%다. 1인 가구 중에는 3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대빈곤율이 계속 늘고 있다. 2006~2010년에 30대 1인 가구 빈곤율은 12.2%에서 16.4%로, 60대 이상은 65.9%에서 71.0%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2인 가구 중 20대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는 빈곤율이 4.8%에서 19.1%로 급증했다. 30대가 가구주인 가구도 빈곤율이 8.2%에서 9.1%로 높아졌다.

2인 가구 중 두 세대가 함께 사는 2세대 가구, 즉 '한부모



1~2인 가구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은 취업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가구 규모별 가구주 취업 상태를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가구주 미취업률은 46.02%에 이른다. 사진제공: S-OIL

가구'의 빈곤 문제는 더 심각하다. 2세대 2인 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 24.49%에서 2010년 27.4%로 늘었다. 반면 1세대 2인 가구 빈곤율은 2010년에 12.98%로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보다 크게 낮다.

정부는 KDI의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 복지정책을 입안할 때 1~2인 가구의 빈곤을 방지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KDI는 보고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KDI 김영철 연구위원은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복지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이제는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해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